

Factors Determining Cancer Patients and Families' Preference in End of Life Care

윤영호, 이창걸*, 김시영**, 이상욱***, 허대석**** 김준석*****,
이근석*****, 홍영선*****, 이정석, 이영선, 유창훈

국립암센터 삶의질향상연구과, *세브란스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경희의료원 내과,
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내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강동성심병원 내과, *****성모병원 내과

배경: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말기상황의 통고와 임종장소의 선택 등 말기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의료진 입장에서의 연구들은 많이 있었으나, 암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태도를 조사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암환자와 가족의 말기통고 여부 및 방법, 임종장소에 대한 태도와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방법: 서울·경기 지역 8개 3차 의료기관의 외래 및 입원 암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말기상황의 통고, 임종장소에 대한 태도와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관련 요인으로 환자 또는 가족, 성별, 나이, 학력, 종교, 직업, 의료비 부담자, 경제적 수준, 거주지, 거주형태, 병기, 진단이후 치료기간을 포함하였으며, 이들 변수들의 말기통고에 대한 태도와 연관성을 보기 위해 χ^2 검정과 다변량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결과: 대상자는 총 687명으로 환자 395명(58%), 가족 292명(43%)이었다. 응답한 환자 96%, 가족 77%가 말기상황의 통고에 대해서 찬성하였으며, 환자, 가족 각각 80%, 51%가 통고에 적합한 사람으로 의사를, 16%, 44%가 가족을 선택하였다($P < .0001$). 적절한 통고시기로는 환자의 경우 진단즉시 47%, 질병과정 변화 즉시 26%이며, 가족의 경우 환자가 원할 때 26%, 진단이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가 26%였다($P < .0001$). 임종 장소로는 318명(46%)이 가정을 선호하였으며, 22%가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 11%가 병원을 선호하였다. 여명을 보낼 장소로는 336명(52%)이 가정을 선호하였으며, 31%가 병원, 15%가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을 선택하였다. 여명을 보낼 장소와 임종장소 선호도간에는 낮은 일치도($Kappa=0.387$, $P < .0001$)를 보였다. 말기통고 여부에 대한 단변량 분석과 다변량 분석결과 12개의 독립변수 중에서 환자 또는 가족인지의 입장 차이만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가족보다 환자일 경우에 더 많이 말기상황의 통고에 대해서 찬성하였다($P < .0001$).

결론: 말기상황의 통고에 대해서 대상자 대부분이 찬성하였으며, 의사가 직접 통고하기를 선호하였으나 환자와 가족의 입장차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임종장소의 경우 가정에서의 임종을 선호하는 대상자는 절반에 불과하였다.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나 말기통고여부 및 방법, 임종장소 등 말기상황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의료진, 환자, 가족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져야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

중심단어: Telling the prognosis of terminal illness, Cancer patients and families' attitudes, end of life care